

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

미 증시,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 2% 넘게 상승

Key Takeaways

- S&P 500 주요 섹터 중 IT +2.7%, 경기소비재 +1.8%,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+1.7% 상승
-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가격 인하 영향으로 국제유가 거의 4%나 하락
-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고조 속 장중 7% 넘게 상승

변화요인

- **미 증시는 애플, 엔비디아 등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. 특히,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IT, 경기소비재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상승폭 크게 나타나.**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도 지속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. 한편,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든 지역의 원유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4% 가까이 하락하였고, 밀과 대두 등 주요 농산물은 공급과잉 우려로 약세 기록. (다우 +0.6%, 나스닥 +2.2%, S&P500 +1.4%, 러셀2000 +1.9%)
- **12월 뉴욕 연은 기대인플레이션은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 달 3.4%에서 3.0%로 둔화.** 이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3년 후(3.0%→2.6%), 5년 후(2.7%→2.5%) 모두 둔화. 항목별로 살펴보다더라도 대학등록금과 금 가격 전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완화. 또한 가계소득과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는 모두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.
- **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고 평가.** 또한 지난 인플레이션 감소를 고려할 때 실업률 증가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밝혀. 연준이 인플레이션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연준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. 그는 오는 3분기 초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해 연내 50bp 인하 예상.

특징종목

- S&P 500의 11개 주요 섹터 중 **에너지(-1.2%)**를 제외한 모든 섹터 상승. 특히, **IT(+2.7%)**가 크게 상승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. **엔비디아(NVDA, +6.4%)**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과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강세. 또한 PC의 게이밍과 AI를 향상시키기 위한 3가지 새로운 그래픽 칩도 공개. 이에 ARM(ARM, +8.5%), 인텔(INTC, +3.3%), AMD(AMD, +5.5%) 등 반도체 관련주 전반 강세. **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(SOX, +3.3%)** 또한 큰 폭의 상승 기록. **애플(AAPL, +2.4%)**은 오는 2월 초 비전프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. 반면, **보잉(BA, -8.1%)**은 알래스카항공(ALK, -0.2%)의 사고 영향으로 연방항공국(FAA)이 모든 797 MAX 9 비행을 중지시켰다는 소식에 약세. 또한 이 비행기의 문을 제작하는 스피리트 에어로시스템(SPR, -11.2%)도 동반 약세. **슬림버거(SLB, -3.0%), 베이커휴즈(BKR, -2.9%)**는 국제유가 약세에 하락.

채권, 외환 및 상품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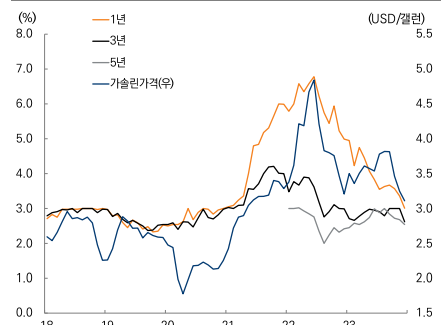
-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든 지역의 원유 가격 인하를 발표하자 WTI는 거의 4%나 하락.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추운 날씨에 따른 난방 수요 증가에도 풍부한 재고(저장량)와 지난 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영향으로 하락.
-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21개월 만에 4만 7천 달러를 회복. 그레이스케일은 현물 ETF에 대한 수수료를 1.5%로 설정. 파이낸셜타임즈는 ETF 출시 기관들 간 수수료 경쟁 언급.

그림 1. S&P 500 섹터 일간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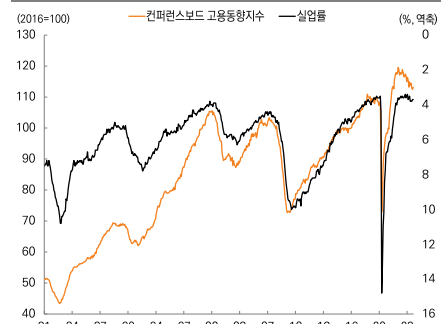
자료: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2. 뉴욕 연은 기대인플레이션



자료: 뉴욕 연은,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3. 컨퍼런스보드 고용동향지수



자료: 컨퍼런스보드,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Market Snapshot

주요 ETF			
ETF 종류	등락률(%)	ETF 종류	등락률(%)
원유시추업체 ETF (XOP)	-0.8	대형 가치주 ETF (IVE)	+0.7
클린테크 ETF (CTEC)	+0.1	중형 가치주 ETF (IWS)	+1.1
소매업체 ETF (XLY)	+1.7	소형 가치주 ETF (IWN)	+1.4
온라인소매 ETF (EBIZ)	+1.6	대형 성장주 ETF (VUG)	+2.1
미국 인프라 ETF (PAVE)	+1.0	중형 성장주 ETF (IWP)	+1.9
핀테크 ETF (FINX)	+3.3	소형 성장주 ETF (IWO)	+2.5
소셜미디어 업체 ETF (SOCL)	+2.3	퀄리티 배당주 ETF (QDIV)	+0.2
클라우드 ETF (CLOU)	+3.2	신흥국 고배당 ETF (SDEM)	+0.2
사이버보안 ETF (BUG)	+2.0	신흥국 저변동 ETF (EEMV)	-0.1
전기차&자율주행 ETF (DRIV)	+1.4	미국 국채 ETF (IEF)	+0.3
글로벌 2차전지 ETF (LIT)	+0.2	하이일드 ETF (JNK)	+0.5
바이오섹터 ETF (IBB)	+2.4	신흥국 채권 ETF (EMBD)	-0.1
로봇&AI ETF (BOTZ)	+3.2	물가연동채 ETF (TIP)	+0.3
반도체 ETF (SMH)	+3.5	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(LQD)	+0.8

US Sector Index				
S&P 500	Close	D-1(%)	D-5(%)	D-20(%)
IT	3,348.98	+2.7	-1.4	+1.4
경기소비재	1,393.36	+1.8	-1.7	+1.7
커뮤니케이션	247.39	+1.7	+0.6	+4.2
부동산	250.33	+1.4	-0.5	+5.6
헬스케어	1,636.96	+0.8	+2.9	+6.6
유틸리티	330.21	+0.7	+2.6	+3.3
필수소비재	767.99	+0.7	+0.7	+4.1
산업재	949.50	+0.6	-1.6	+3.3
금융	631.18	+0.4	+0.8	+5.4
소재	534.14	+0.4	-1.0	+3.9
에너지	639.69	-1.2	-0.1	+2.6

글로벌 FICC 동향							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70.77	-3.8	-0.9	Dollar Index	102.249	-0.2	+0.9
브렌트유	76.12	-3.0	-0.8	EUR/USD	1.0955	+0.1	-0.8
천연가스	2.98	+2.4	+17.8	USD/JPY	144.13	-0.3	+2.3
금	2,033.50	-0.8	-1.8	GBP/USD	1.2753	+0.3	+0.2
은	23.31	-0.0	-3.2	USD/CHF	0.8477	-0.3	+0.8
알루미늄	2,236.50	-1.6	-6.2	AUD/USD	0.6721	+0.1	-1.4
전기동	8,448.00	-0.2	-1.3	USD/CAD	1.3348	-0.1	+0.8
아연	2,509.00	-2.1	-5.6	USD/RUB	91.0090	+0.1	+1.7
옥수수	455.00	-1.4	-3.6	USD/BRL	4.8740	-0.0	+0.4
밀	596.25	-3.2	-5.0	USD/CNH	7.1622	-0.0	+0.5
대두	1,245.50	-0.8	-4.0	USD/KRW	1,316.00	+0.0	+2.2
커피	181.40	-0.8	-3.7	USD/KRW NDF1M	1,310.64	-0.1	+1.7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4.010	-3.6	+13.1	스페인	3.117	-3.4	+12.4
한국	3.355	+1.8	+18.0	포르투갈	2.777	-3.1	+12.1
일본	0.610	0.0	-0.4	그리스	3.293	-3.1	+23.2
독일	2.136	-2.0	+11.2	이탈리아	3.819	-3.2	+11.9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